

The Builder V.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1. 구원의 의미 - 출애굽

(1) 옛사람의 죽음

[요한복음 3:2-3]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은 거듭남이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실재'를 보았고, 그 능력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거듭남이다.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안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태어나는 길은 이전의 존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이다.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이 그런 과정이다. 출애굽은 노예로 자신을 인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애굽은 세상이며, 바로는 세상의 영향력이다. 출애굽은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의 탄생을 말한다.

[출애굽기 12:29-31]

29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말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말아들과 짐승의 말배까지 모두 치시니,

30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 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31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400년이 넘는 세상 애굽의 영향력이 단절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다. 이집트 안에 있는 '처음 난 것'(29절)이 모두 죽었다. 이 죽음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였다.

(2) 새 사람이 서다.

성도의 구원은 이와 같은 의미이다. 애굽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처음 사람, '죄인 된 아담'의 죽음이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성이 구원받기 전의 '나'이다.

[로마서 5:17-18]

17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8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범죄 한 처음 사람(장자)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옷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된 '새사람'을 주셨다.

출애굽 안에 보여진 구원은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었을 때 실재가 된다. 그 옛사람은 우리를 고통, 고난, 비교, 절망, 두려움에 반응하게 하는 자이다. 어둠, 혼돈, 무질서 안에 있게 하는 자이다. 의심, 시기, 질투, 수치, 정죄함 안에 있게 하는 자이다.

죽지 않은 옛 자아가 우리를 불행에 반응하게 한다. 죽지 않은 옛 자아는 나의 모든 행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그 블랙홀의 중심에 '사망'이 있다. 그 사망의 힘이 우리의 삶에 '허무함과 두려움'을 준다.

(3)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새 사람

구원은 과거의 '옛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라.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에 어떤 배경과 삶에 초점이 없다.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미래'에 초점이 있다. 그들의 인생 안에 세워진 새사람은 '다시는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울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NIV)

새사람이 세워지는 영적 원리는 '하나'이다. 과거,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건축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세우신 일의 시작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임을 명심하라.

2. 'New'의 의미

새 것의 의미는 '과거'가 지나간 상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좋지 않은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 안에 '좋았던 것' 또한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한다.

(1) 좋지 않았던 과거로부터의 단절

(2) 좋았던 옛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좋았던 과거는 좋지 않은 것보다 물론 유익하다. 그러나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좋았던 영향력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 너무 좋았던 옛 경험은 오히려 현재 새로운 일이 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너무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시제는 과거에서 바라보는 현재이다.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과거'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신 광야의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셨다. 그 증표가 만나이다. 매일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날마다 달랐다. 어제 하셨던 일이 오늘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셨다.

[예레미야애가 3: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끊임없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방해물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3)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 영광으로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영광의 크기에 갇혀있지 않다.

[학개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라.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라. 더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세울 것인가? 과거에 머물러 있겠는가? 내 능력만큼 갈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빌더’이다.

[시편 127:1]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

과거를 넘어서라. 그리고 이전과 다른 것을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일은 경이로움으로 실재가 될 것이다.